

한국과 중국의 문화색채 특성 -전통극을 중심으로-

김지언[†] · 김지영*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서일대학 의상과

A Study on the Attributes of Cultural Color in Korea and China -Focus on Traditional Performance-

Ji Eon Kim[†] · Ji Young Kim*

Dept. of Apparel Fashion Business, Hansu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il University

접수일(2008년 11월 21일), 수정일(2009년 1월 15일), 게재확정일(2009년 1월 21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of color application in culture of Korea and China.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costume color of Changgeuk and Beijing opera. First, a bibliographical inquiry includes the attributes of cultural color in Korea and China and the costume attributes of Changgeuk and Beijing opera. Second, this survey analyzes Munsell's 3 attributes(Hue, Value, Chroma), tone by extracted color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ultural color factors of Korea and China are classified geographical factor, internal cultural factor and external cultural factor. 2. Changgeuk costume much more used high value and medium & low chroma for korean temperate climate. But Beijing opera costume prefers high-medium value and low chroma color, various ranges of color because of China huge land and various climates, as geographical factor. 3. Changgeuk costume much more used YR color(no-dyeing color) because of korean white robe preference. Beijing opera costume much more used R color than Changgeuk costume because of traditional preference of R color, as internal cultural factor. 4. Changgeuk costume and Beijing opera costume show the practical use of ascetic color like as jade green. Ojungsack much less used than Obangsack by the theory of exponents of the five elements doctrine, as external cultural factor.

Key words: Cultural color, Geographical factor, Internal cultural factor, External cultural factor; 문화색채, 지리적 요인, 내적 문화적 요인, 외적 문화적 요인

I. 서 론

1. 연구의 의 및 목적

글로벌화된 세계 속에서 문화간의 영향인자가 과

거에는 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지리적인 인접성보다는 가치의 동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간의 비교를 명확히 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가는 방법으로는 비교철학, 비교신화학, 비교교육학 등이 있다. 한나라의 문화니 전통이니 하는 말은 한 사회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영역에서 오랫동안 전하여

[†]Corresponding author

E-mail: jekim007@empal.com

본 논문은 2008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내려오는 연속성을 가진 계통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통문화, 외래문화, 문화접변, 문화창조의 문제는 단선진화의 논리보다는 다선진화와 변증법의 논리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오늘날 문화접변, 문화수용, 문화중첩 등으로 한 국가나 문화의 “공유함”의 개념은 글로벌 환경이라는 사고체계에 의해 “공유함”과 혼돈되고 있다(이영희, 2001). 더욱이 서로 이질적인 속성을 혼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가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보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고대부터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시아권으로 상호 문화적인 교류를 지속해왔다. 오랜 역사 속에 한자문화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 체계를 공유하였으며 색채문화는 음양오행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과 중국에는 서양의 오페라와 같은 전통극으로 창극과 경극이 있다. 창극은 자유로움으로 대표되며, 중국의 경극은 활기찬 동작을 보여준다. 창극은 19세기까지 전해오는 판소리가 20세기 이후 연극의 영향을 받아 노래와 음악, 연기와 즉흥적인 표현이 춤과 관현악단의 반주와 결합된 형태의 종합예술이다. 또한 중국의 경극은 전통적인 음악, 노래, 낭독, 춤, 서커스, 무술 등을 융합시켜 1830년대 북경에서 발전된 종합무대예술이다. 경극 배우들은 정확한 발음으로 독특한 멜로디를 유지하면서, 리듬에 맞춰 대사를 읊는다. 타악기와 현악기가 주로 사용되어 매우 속도감이 있고 경쾌하며, ‘검보(리엔푸: 臉譜)’라는 짙은 화장을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두 국가인 한국과 중국간에 전통적인 색채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융합(culture fusion)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와 창조적 영감을 제공받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중국에서는 경극, 한국에서는 창극의 복식 색채를 비교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 한국과 중국의 문화색채 특성

각국의 역사 속에 자생적으로 내재되어 표현되어지는 고유한 문화색이 분명히 존재한다. 각 나라들은 기후와 토양의 영향과 사회문화적인 요건을 기반으로 고유한 색채 관념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

유한 색채 관념을 가지게 되는 이유로는 지리학적 속성을 들 수 있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처럼 산림이 무성한 지역의 사람들과는 녹색을 확실히 다르게 인식한다. 또한 눈에 둘러싸인 에스키모인들에게서 백여 가지의 흰색에 대한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리적인 요인은 색채의 원료가 되는 염료를 제공하는 토양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지리학적 요인에 특정한 문화에서만 보여지는 요인들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역사상 복색금제제도같이 어떠한 색채는 어떠한 계층의 특성을 대변하여 그 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외적인 영향요인으로 한 문화의 색채에 대한 인식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 다른 문화에 의해 영향받기도 한다(Hibi et al., 2000).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 문화색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크게 지리적 요인, 내적 문화적 요인, 외적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1. 지리적 요인

지리적 요인으로는 크게 풍토적·기후적인 요인, 식물 친화적 색명, 색료의 자연친화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풍토적·기후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으로서, 풍부한 색감을 경험하기에 용이하였다. 또한 온대기후의 영향으로 저채도와 고명도의 순한 색이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풍토의 변화가 심하고 대기 중에 먼지가 많아 빨강, 청색 등의 원색계열의 색상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중국의 색채는 재료 본연의 색을 사용하고 있으나 넓은 국토와 상이한 기후대의 영향으로 갖가지 색의 재료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색이 있다. 유교의 영향으로 상징적, 계급적 색채 사용이 이루어졌으며, 민족 감정과 풍토의 영향, 여기에 중화사상이 결합되어 채도가 높은 색과 중간 정도의 명도를 가진 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식물친화적인 색명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의 색채의 자연친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색명은 색채의 출처나 색료에 근거하여 명명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서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명인 동물이나 광물에서 유래된 색명은 드물고 식물에서 유래된 색명이 많다. 농업이 생산의 주체가 되며 4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색명,

특히 식물친화적인 색명이 더욱 풍부하게 표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치자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치자색, 쪽두서니라는 다년생 넝쿨에서 유래한 붉은색 쪽두서니, 쪽에서 유래한 남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색료의 자연친화성을 들 수 있다. 꽃, 잎, 씨앗, 식물의 껍질, 곤충, 광물 등 자연환경 속에서 색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연지(蓮池), 등황(橙黃), 남(藍) 등의 식물성 염료가 자주 애용되었는데 광물성보다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렴하기 때문이다. 당대이후 둔황변화에 사용된 안료는 고령토, 석황, 대자, 석록, 석청, 그을음 등의 천연광물성 안료와 주사, 연분 등의 인공안료 등이다. 적색안료는 광물성 인조안료로 주사, 단사, 광명주, 진사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는 홍화와 천초가 있으며, 동물성으로는 자류와 양홍이 있다(조영실, 2006). 청색이나 녹색의 안료는 녹청, 백록, 석록, 군청, 감청 등이 있고, 황색안료는 석황, 옹황, 자황, 황토와 식물성의 등황, 황벽, 치자 등이 있다. 백색안료에는 백악, 고령토, 호분 등이 사용되었다. 흑색안료에는 흑주, 소안료, 전기석 분말 등이 있다. 광물성의 천연안료는 중국이나 서역등지에서 수입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식물성 안료인 치자, 쪽, 홍화 등에서 추출된 전통 염색기법이 발달하였다.

2. 내적 문화적 요인

한국과 중국의 색채에 영향을 미친 내적 문화적 요인은 계급적인 색채 사용에 의한 색채의 계급성(The hierarchy of Colors)과 색채의 상징의미를 중시하는 의미중심적인 색채 사용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색채는 사회조직 원리로서 작용했던 성리학의 영향으로 계급상징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금채 색사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계급에 의한 색채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신라 제23대 법흥왕때에 복색제도가 제정되었는데, 신라 무관의 복색을 녹, 자, 백, 비, 황, 흑, 벽, 적, 청의 털옷깃으로 구별하였다. 고려 제4대 광종때는 백관의 공복을 직급에 따라 자, 단, 비, 녹으로 제정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에는 색명으로 부분적으로 계급을 나타내다가 고려부터는 공복으로 제정하여 계급을 상징하게 된다(김지연, 김영인, 1995).

중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상징적, 계급적 색채 사용이 이루어졌다. 신해혁명이전까지의 중국은 ‘사람은

5등급으로 나누고 의복은 5색으로 구분한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복색의 규제가 철저하였다. 오방색은 정면성과 고귀를 상징하며, 청백사이의 벽색과 적흑색사이의 자색, 굴황색 등은 간색으로 비천을 상징하였다. 명, 청시대에 이르러 복색에 대한 규정이 더욱 명확해져서 평민과 부녀들은 자색, 녹색, 도홍 등의 간색으로 사용이 제한되었다. 이는 관복의 정색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민 계층은 갈색만 사용할 수 있었다. 청8품(淸8品: 청나라의 관급)이하 관리는 황색, 향색, 미색, 추황색을 입을 수 없으며 노비나 광대들은 꽃문양으로 된 능형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고, 중국 평민도 다양한 색깔에 관한 규칙을 정하곤 하였다(최연, 2007).

고대 한국인들은 자신보다 강력한 힘에 의존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직적인 믿음으로 가졌으며,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할 때 적색 또는 청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관습이 우리 민속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구미래, 1992). 이런 민속 신앙에 바탕을 둔 색채는 감성적인 색채라기보다는 색채를 하나의 힘으로 간주하려는 의미지향적인 색채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태극문양에서 보듯 음과 양이 어우러진 상태를 조화롭게 본다. 청색과 적색의 태극을 부적함이 없는 상태로 보는 이유는 오방색을 통해 색 하나하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색들이 조합되었을 때 그 의미가 조화로우면 느낌까지도 조화로운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경향은 아직도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나 각종 한국 홍보용 디자인에 남아있다. 한국인의 이런 의미중심적 정서는 색채의 경우도 미적 감수성에 대한 반응보다는 그 이면에 내재하는 개념이나 의미,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의식하고 표현하였다.

이렇듯이 서구의 느낌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색채에 비해서 한국과 중국은 의미중심적이고 색상중심적인 색채 사용을 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3. 외적 문화적 특성

외적 문화적 특성은 중국에서 전파된 음양오행사상과 불교, 도교, 유교사상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색채관념인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의 개념이 삼국시대에 한국에 전파되어 색채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양설과 오행설로 독립되어 있던 사상이 기원전 4세기

<표 1> 오행 및 오원소의 상호관계

오행	오색	오방	계절	신수	오미
금金	白	西	가을秋	백호	매운맛
수水	黑	北	겨울冬	현무	짠맛
화火	赤	南	여름夏	주작	쓴맛
목木	靑	東	봄春	청룡	신맛
토土	黃	中央	季夏		단맛

초인 전국시대에 결합되기 시작하여 한대(漢代)에 이르러서 음양오행설로 통합되었다. 음양오행설은 우주간과 삼라만상이 모두 음양의 화합, 조화로 인하여 발생, 발전, 번영하는 것이며 만물의 생성원리를 <표 1>에서와 같이 오행인 목, 화, 토, 금, 수의 변천으로 설명하였다. 음양오행설에는 赤, 靑, 黃, 白, 黑의 오정색과 靑, 綠, 朱, 紫, 紅의 오간색이 존재한다(김영숙, 1988).

기원전 4세기 인도의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사상체계의 큰 축을 형성하면서 고구려에 372년, 백제에 384년, 신라 법흥왕때에 한국에도 전파된다. 그러나 불교는 색채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신선사상에서 유래한 도교사상과 불교사상이 번성하기는 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유교적인 전통을 따랐다. 불교, 도교, 유교사상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중국 문명을 발전시키고 현재까지 유산을 이어가게 하고 있다. 다만 도교 사상은 금욕주의적인 인격을 추앙하는 마음에서 금욕주의적인 색채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III. 창극과 경극의 복식 문화 특성

1. 창극 의상의 복식 문화 특성

창극은 19세기까지 전해오는 판소리가 20세기이후 연극의 영향을 받아 노래와 음악, 연기와 즉흥적인 표현이 춤과 관현악단의 반주와 결합된 형태의 종합 예술이다. 크게 판소리의 사설과 가락을 그대로 살려서 부르는 판소리계 창극과 대본을 새로 지어 판소리 가락에 얹어 부르는 창작창극이 있다. 고수의 복장단에 맞추어 한사람의 소리광대가 부르던 판소리를 배역에 따라 분창하고, 무대배경과 의상, 연기를 추가한 것이 창극이다.

창극의 복식은 전통적인 한복의 기본적인 구조인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등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실루엣선을 느낄 수 있다. 창극이 발생한 근대는 전통 한

국 복식이 중국 대 조선복제의 이중구조에서 양복과 한복의 이중구조로 변모되는 시대적인 격변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학연구실, 1980) 직물 색상 및 조직이 다양화되고 실용주의적 개화사상의 영향으로 의복 개량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양장지가 한복에 사용되고, 통치마와 고름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직물 산업의 발달에 따른 한복의 색상과 문양의 다양화 외에도, 연도에 따른 유행색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34년 봄에는 푸른색, 여름에는 녹색과 장미색이 유행하였고, 분홍색은 1930년대 전반에 걸쳐 계속 유행되었던 색이다(이지현, 2005).

2. 경극 의상의 복식 문화 특성

중국 경극 의상은 초시대적인 전통극 고유의 것으로서 중국 전통의 미의식과 문화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조형적으로 결합시켜, 의상의 형태와 색채, 문양을 통해 조형적인 효과와 더불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수단으로서 등장인물의 신분과 성격을 상징화함으로써 의상의 형태, 색채, 문양 등의 사용을 달리 함으로서 관객에게 등장인물의 지위, 풍속, 상황, 정신, 기질을 표현해주는 동시에 무대의 총체적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경극 의상의 색채는 주로 신분을 나타낸다. 검보(臉譜)의 색채가 인품과 성격을 나타내는데 반한 것으로 무대 장면의 시각적 요소가 되는 동시에 등장인물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반영한다. 관객은 등장인물이 착용한 의상의 색채를 통해 극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관객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색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색채가 여러 가지 우의(寓意)와 상징을 갖게 되면서 내포의 심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포작용은 어떤 문화의 전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습속과 관념에 따라 색이 내포하는 의미와 내용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위베르스펠트, 1977/1991). 경극 의상은 상오색인 황(黃), 홍(紅), 녹색(綠), 백(白), 흑(黑)과 하오색인 자(紫), 남(藍), 분(粉), 호(琥), 향(香)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색상은 등장인물의 상황과 사회적 지위를 우의적으로 표현하며, 이는 기본상징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경극 무대의상의 색채는 색이 갖는 장식적 기능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천대규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연출가와 관중사이의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언어'이다(이경주, 2003).

<표 2> 경극 의상 색채별 상징의미

색 채	색채별 상징의미
홍 색	피, 살기, 재앙을 몰고 오는 인물이나 성격이 난폭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인물에 사용됨
백 색	의로운 충신을 상징, 젊고 무예가 있는 뛰어난 장군, 중국 음양오행에서 서쪽 상징
황 색	황제가 사용하는 색
녹 색	단순한 평민에서 신분 상승을 한 영웅형상을 상징, 일반 무장임
남 색	쪽색, 용맹하고 위엄은 있으나 성격이 잔악하고 사나운 인물
흑 색	조정에서 정사를 보는 제상의 이미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한 인물, 황색 다음으로 권위있는 색

경극 의상의 상징적 의미전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역자의 착용은 전쟁중인 장군임을 알 수 있다. 홍색 염구의 인물은 재난을 몰고 올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를 나타내며, 방포와 염구에 오조용 자수는 왕에 비금가는 신분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중국의 문화적 전통의 영향으로 동쪽을 상징하는 청용과 서쪽을 상징하는 백호의 사용에 따른 의미차이도 예가 된다. <표 2>에 경극 의상의 색채별 상징의미를 제시하였다.

청삼이란 청의를 입은 남자배우를 지칭하는데 청색으로 물들인 소박한 의상을 입고 양가의 자녀역을 해내는 여자역의 남자배우 즉 단(旦)을 일컫는다. 천대규제에 의거하는 경극의상의 변화는 내재되어져 있는 상징성을 유지함으로써 관객과 배우들과의 의사수단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연출가의 대변인의 역할까지도 소화하는 것이다(신경섭, 1998).

경극을 통해 강한 보색대비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의 색채감각이 그대로 나타난다. 원색의 사용과 원색의 색상대비는 색채 조명을 쓰지 않고 흰색 조명을 사용하는 경극 무대미술에 잘 어울리어 실제적으로는 현대적인 감각과 거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무대 위에 올라서면 경극 의상의 색채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색채로 인식된다. 색채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서 밝은 선홍, 밝은 녹, 황, 백, 흑 등 다양한 색상에 금실과 은실로 수를 놓아 장엄하고 화려하게 표현된다(“중국 경극에 대하여”, 2008).

IV. 전통극의 색채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는 창극 의상의 이미지와 경극 의상의 이미지를 2007년 8월 10일~2008년 2월 20일에 걸쳐 각각 104장, 107장 총 211장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창극 의상의 이미지는 구글 이미지 검색(<http://www.google.com/imghp?hl=ko>)을 통해서 판소리계 창극인 심청가, 춘향가, 흥보전과 창작극인 시집가는날, 창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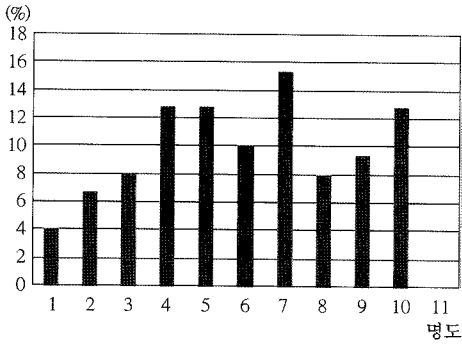
의병장, 창극제비 등에서 수집하였고, 경극 의상의 이미지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미지 중에서 동일한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제외하여서 중복되는 이미지가 없도록 이미지를 정리하여 각각 72장, 76장의 선정된 이미지에서 관측환경과 모니터 영점조정을 거친 후, 표준적인 색채관리시스템(CMS)을 탑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상의 색채를 추출하여 총 625색의 색채 데이터를 얻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측색시 관측환경의 통일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에서 의상의 색상을 컬러 피커(color picker)로 추출하여 먼셀 Conversion Version 8.0.3을 활용하여 RGB값을 H/V/C값으로 변환하였다. 추출된 색채데이터를 통하여 색상, 색조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색상분석은 먼셀 색체계에 의거하여 색상, 명도, 채도로 분석하였으며, 색조 분석방법은 일본 색채연구소에서 제안한 PCCS 색조 체계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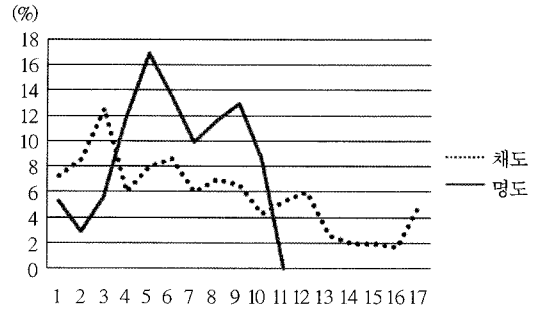
1. 지리적 색채 요인

<그림 1>에서와 같이 창극 의상의 명도는 중명도와 중·고명도의 색상이 주를 이룬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창극 의상의 채도는 고채도보다는 저명도나 중·저명도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고명도인 명도 7과 중·저채도인 5, 6에서 최고점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한국은 고명도, 중채도의 색상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명도와 채도 분포를 동시에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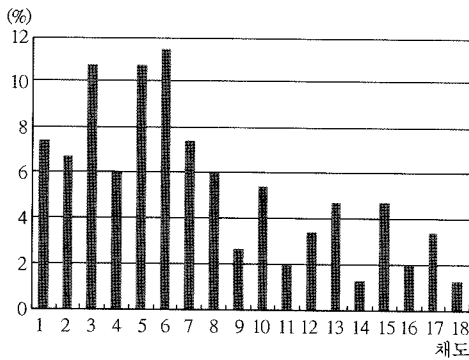
<그림 4>에서와 같이 경극 의상은 명도 3, 4, 5와 7, 8에 66.9%가 분포되어 명도 4에서 최고 분포를 보이지만, 경극 의상의 명도는 중명도나 중·고명도에 주로 분포됨을 알 수 있다. 채도는 1, 2, 5, 8에 주로 분포되며 채도 2에서 최고점을 보인다. 그러므로 경극 의상의 채도는 주로 저채도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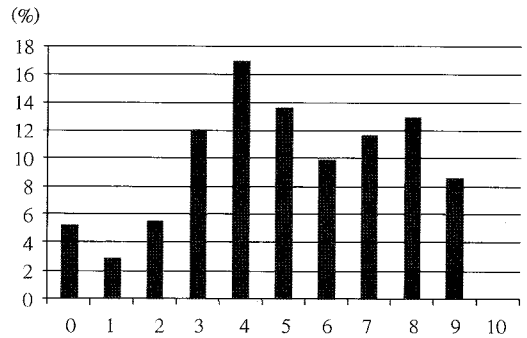
<그림 1> 창극 의상의 명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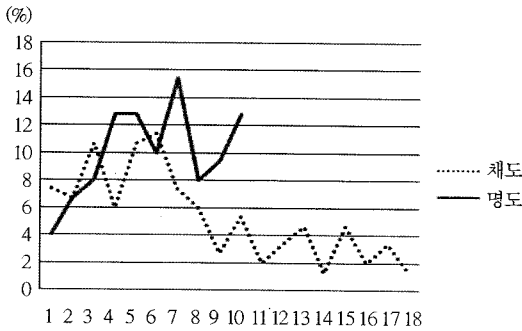
<그림 4> 경극 의상의 명도·채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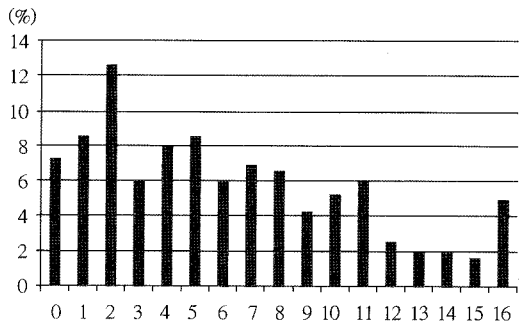
<그림 2> 창극 의상의 채도 분포



<그림 5> 경극 의상의 명도 분포



<그림 3> 창극 의상의 명도·채도 분포



<그림 6> 경극 의상의 채도 분포

<그림 5-6>에서와 같이 경극 의상은 중명도나 중·고 명도와 저채도와 고채도에 주로 분포한다. 중국은 채도가 높은 색상이나 중간정도의 명도의 색상들을 많이 활용한다. 연구결과, 명도면에서는 중간 명도의 색상의 활용이 많았고, 채도는 고채도 색상과 더불어서 저채도의 색상이 많이 활용되는 점이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색채 활용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통 염색 방법이 채도면에서 현대의 염색법보다는 어렵게 측색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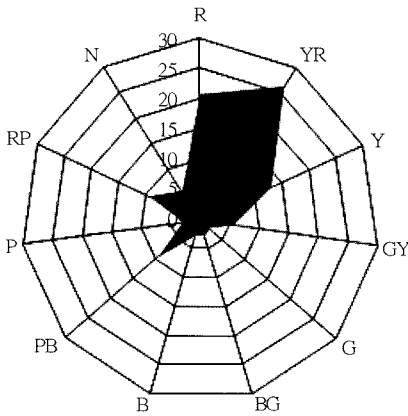
2. 내적 문화적 요인

창극 의상의 색상분포를 <그림 7>에서 살펴보면, R과 YR의 분포가 45%에 해당하며 특히 YR색상의 활용이 눈에 띄게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R, YR, Y의 분포는 59%에 해당하여 창극 의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PB(10%)와 RP(7.5%)와 중성색(7.5%)이 사용되고 있다. Y와 YR의 사용빈도가 높은 이유는 재료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소재의 색상

이기 때문에 백의선호사상과 친자연주의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 외로는 GY, BG, B색상이 활용되며, 음양오행설의 간색으로 의복색상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로 G색상의 활용이 가장 적은 빈도를 보였다.

40 색상 분포를 <그림 8>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7.5YR>Neutral>10R>7.5YR>2.5R 순의 분포를 볼 수 있다. 창극 의상에서는 7.5YR의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소색의 색상이므로 친자연주의, 백의 선호사상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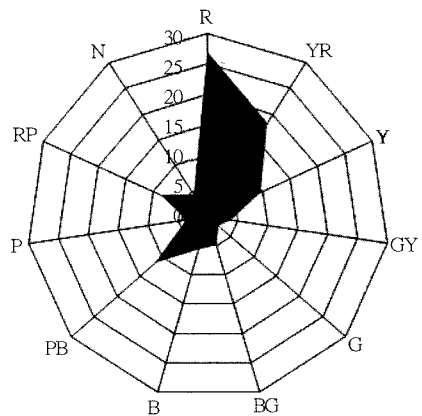
R색상계열의 경우는 5R, 7.5R, 10R의 분포가 2.5R보다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YR색상계열에서는 7.5YR과 2.5YR의 사용빈도가 높았고, 5YR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Y색상계열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활용되었는데, 7.5Y가 5Y나 10Y에 비해 적게 사용되었다. PB계열은 7.5PB의 활용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7.5RP와 7.5GY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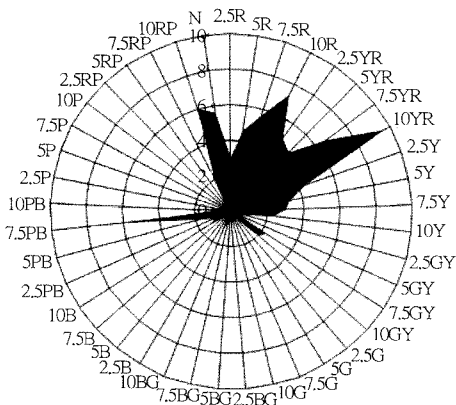
<그림 7> 창극 의상의 10 색상 분포

<그림 9>에서와 같이 경극의 색상은 R(26.9%)>YR(18.2%)>PB(11.6%)>Y(9.6%)색상의 순으로 분포되는데, 특히 중국인들에게 행운의 색으로 인식되는 R색상은 활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다. R색상 중에서는 7.5R(11.6%)>5R(6.3%)>10R(5.2%)>2.5R(3.9%)의 분포로 7.5R색상의 활용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10YR(7.2%)과 N(4.3%), 7.5PB(3.6%) 5PB(3.6%), 2.5RP(3.3%)가 많이 활용되었다. 경극의 색상에서는 R과 YR, PB 색상이 56.7%를 구성하는 주된 색상군으로 볼 수 있는데, 창극 의상은 R, YR, Y색상이 주된 색상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창극 의상에 비해 경극 의상은 PB 색상의 활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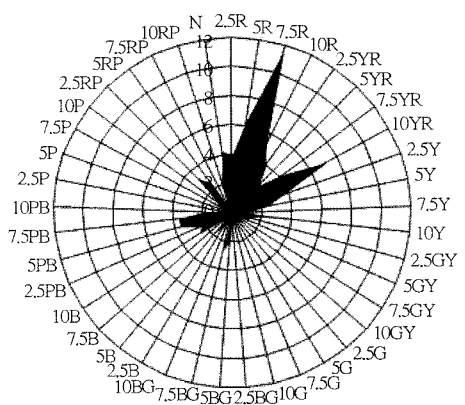
40 색상 분포를 <그림 10>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7.5R(11.6%)>10YR(7.2%)>5R(6.3%)>10R(5.2%)>7.5YR(4.3%)=N(4.3%)의 순서를 보인다. 다음으로는 5PB, 7.5PB가 많이 사용되었다. R색상 중에서는 7.5R(11.6%)



<그림 9> 경극 의상의 10 색상 분포



<그림 8> 창극 의상의 40 색상 분포



<그림 10> 경극 의상의 40 색상 분포

>5R(6.3%)>10R(5.2%)>2.5R(3.9%)의 분포로 7.5R색상의 활용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YR색상 중에서는 10YR(7.2%)>7.5YR이 많이 분포되며 중성색도 같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3. 외적 문화적 요인

창극 의상의 색조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p(14.5%), lt(13.7%)의 파스텔색조에 dkg(10.9%), dp(8.1%), dk(8.1%), d(7.4%)의 어두운 색조가 주류를 이루며 s(6%), b(4.6%), v(3.1%)로 선명한 색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가진다. 한국 창극 의상의 색채는 오방색에 의한 선명한 원색대비인 l, b, v의 선명한 색조 및 dk, dp의 어두운 색조군과 소색과 옥색같은 금옥주의적 p, vp색조의 이중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중성색 중에서는 흰색(4.9%)과 ltGy(2.8%)의 사용이 많았고, 오방색 중 흑색으로 분류되는 회색과 검정색은 의복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한민족의 백의승상의 전통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경극 의상의 색조는 P(16%)>lt(13.9%)>d(11%)>s(9.6%)>dkg(8.2%)>b(7.1%)의 순서를 보인다. P, lt같은 파스텔 색조군과 d, s, b같은 선명한 색조군과 어두운 색조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창극 의상에 비해서는 어두운 색조군의 활용은 적었다. 반면, s(9.6%), b(7.1%), sf(5.7%), v(2.8%)색조는 많은 분포를 차지하여, 선명한 원색계열을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색채는 한국에 비해 유채색 사용비율이 가장 높으며 밝고 연한 색조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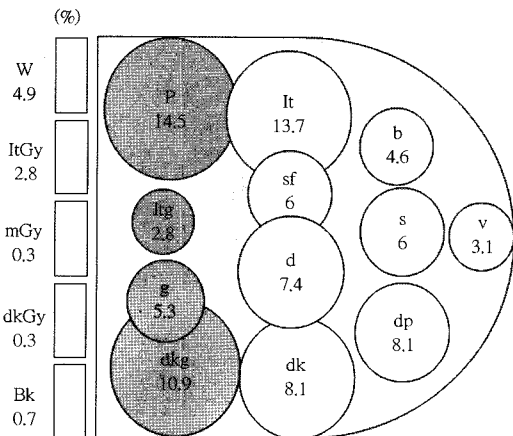
한 전 영역과 부드럽고 동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색채 이미지 전 영역에 분포하며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느낌과 역동적인 강렬함, 인위성을 강조한다는 선행연구와는 비교하여서 유채색의 사용빈도와 선명한 색상의 활용은 많았지만 p색조와 같은 밝고 연한 색조의 활용도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전체 복색 중에서 주된 의상의 색채는 유채색이 주로 활용되지만 장신구류에 색채에는 밝고 연한 색조도 활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3>에서와 같이 경극 의상과 창극 의상 모두 중성색은 흰색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경극 의상은 전 색상, 색조영역에 넓게 분포되었으며, R색상과 PB색상은 전 색조에 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음양오행설의 간색에 해당하는 G색상의 활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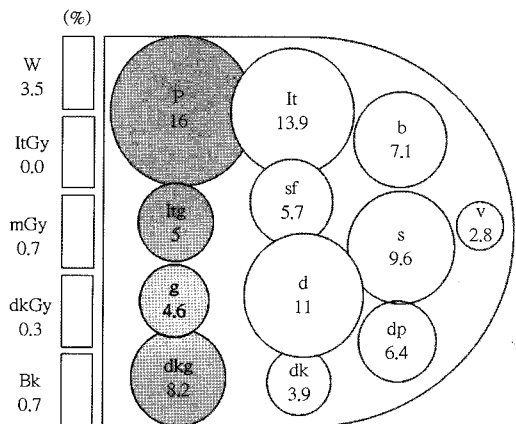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에 전통적인 색채문화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극인 창극과 경극에서 활용되는 의상의 색채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의 문화색채 특성을 지리적 요인, 내적 문화적 요인, 외적 문화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지리적 요인에는 풍토적·기후적 환경과 식물친화적 색명, 색료의 자연친화성이 포함되고, 내적 문화적 요인에는 의미중심적 색채 사용과 색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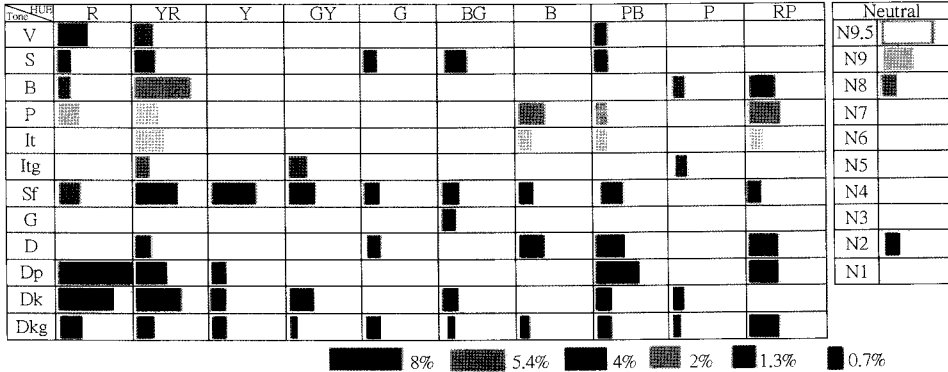


<그림 11> 창극 의상의 색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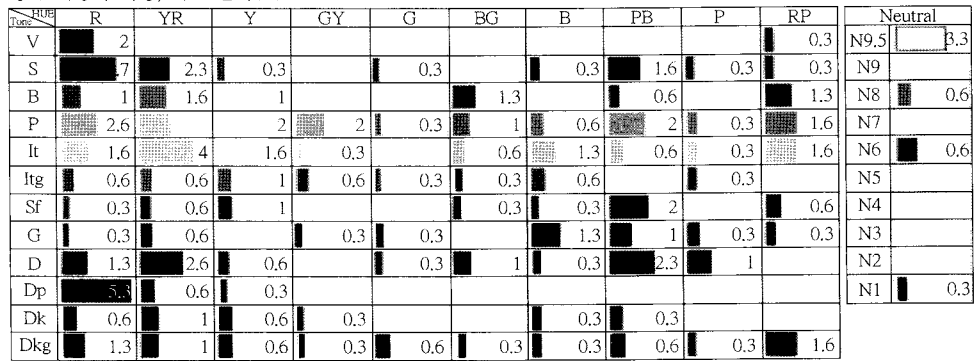


<그림 12> 경극 의상의 색조 분포

창극 의상의 색상, 색조 분석(%)



경극 의상의 색상, 색조 분석(%)



<그림 13> 창극 의상과 경극 의상의 색상, 색조 분석

계급성을 들 수 있다. 외적 문화적 요인에는 음양오행 사상에 의한 오방색의 사용과 성리학, 도교 등 외래사상의 영향에 의한 금육적 색채 사용을 들 수 있다.

둘째, 한국 및 중국의 지리적 색채 특성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창극 의상은 중명도, 중·고명도에 분포되며, 채도는 저채도, 중·저채도에 분포되었는데 이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기후의 영향으로 발달된 색감을 고명도와 안정감있는 저채도 색채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중간 명도와 고채도의 색상이 중국에서는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지만 연구결과, 중국 경극 의상의 명도는 중·고명도에 분포되지만 채도는 저채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색상 면에서 경극 의상에서는 거의 모든 색상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이 넓은 국토와 상이한 기후가 포함되어있는 지리적 요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및 중국의 내적 문화적 색채 특성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은 백의숭상정신과 친자연주의사상이 농축된 색채문화로, 한국의 창극 의상에서는 중국

의 경극 의상과 달리 YR색상계열의 사용이 높았다. Y계열과 YR계열 색상은 염색을 하지 않은 재료 그대로의 색상을 의미하는 소재의 색상으로 친자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색채관을 볼 수 있다. 한국 창극 의상에서는 흑색의 사용이 적고 백색의상이 사용빈도가 높았으므로 백의를 숭상하는 한국인의 고유한 색채의식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중국 경극 의상에서는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R색상계열의 선호가 두드러지면 창극 의상에 비해 YR보다는 PB색상의 활용이 높았다. 이는 선명한 홍색, 청색의 원색조의 색채를 많이 활용하는 화려한 색채 사용의 일면을 볼 수 있었으며, 활용되는 색채의 영역이 창극 의상에 비해 포괄적으로 넓게 분포되었다. 또한 창극 의상 색조에서도 선명한 색조와 어두운 색조에 의한 원색대비가 두드러지는데, 경극 의상에서는 어두운 색조군보다는 선명한 색조와 밝은 색조의 활용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색채 활용을 볼 수 있다. 이는 내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외적 문화적 색채 특성 면에서 음양오행사상에 의해서 오정색의 활용은 많은 반면, 간색에 해당하는 G색상의 활용은 적게 나타났으므로 외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도교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금육적인 옥색의 활용이 한국에서는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옥색의 활용과 더불어서 다양한 유채색의 활용도 동시에 많아서 상대적으로는 적게 활용되었다. 이는 외적 문화적 요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 창극 의상과 중국 경극 의상의 색채속에 양국의 지리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의 경극 의상에서는 한국인 특유의 백의숭상정신과 친자연주의사상이 내포되어 있으며, 한국과 중국 양국 의상의 색조면에서 대비적인 색채를 활용함에 배색의 시각적인 효과를 극명하게 나타내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적 문화적 요인에 의한 외래사상 중 색채문화에서는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오방색 중 정색의 사용빈도는 높았지만, 현대의 색채 활용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색채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간색이라는 이유로 색채 활용의 빈도가 미비하게 나타났다. 또한 도교의 영향으로 금육주의적인 색채 활용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색채문화는 그 나라의 지리적, 내적, 외적인 문화에 의해서 단지 미학적인 관점만이 아닌 독특한 특수성을 내포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이 인접한 문화에서는 서로 사상적인 공유로 인한 보편적인 색채 활용의 사례를 접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색채문화가 반영된 패션문화제품 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구미래. (1992). *한국인의 상징세계*. 서울: 교보문고.
- 김영숙. (1998). *한국 복식사에 나타난 전통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인, 김영인. (1995). 한국인의 녹색상징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5, 149-166.
- 신경섭. (1998). *경극 獨木關 淵蓋蘇文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위베르스펠트, 안느. (1977). *연극기호학*. 신현숙 옮김 (1991).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이경주. (2003). *중국 경극의상의 미적요소를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희. (2001).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조형 의식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2(1), 1-18.
- 이지현. (2005). *한국 복식색채의 특성과 문화기호론적 해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실. (2006). *음양오행설을 통한 한국적 색채미감연구-오방색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국 경극에 대하여. (2008). *Naver 지식인*. 자료검색일 2008. 7. 12, 자료출처 <http://www.chinanara.com/kung8.htm>
- 최연. (2007). *현대 치과오의 미학적 특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학연구실. (1980). *한국사학3, 한국근대문화에 관한 공동연구 4*.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학연구실.
- Hibi, S., Fukuda, K., & Bester, J. (2000). *The colors of Japan*. Tokyo: Kodansha International.